

2025
0920



중국의 운명을 쥔 2억 불안정 노동자들

중국의 2억 깃워커

"China's 200m gig workers are a warning for the world"

중국의 2억 킷 워커는 전 세계에 대한 경고다

"Many Asian countries run the risk of getting old before they get rich."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출처: The Economist (2025.9.20)

한국에서 '알바'라고 하면 보통 카페, 편의점, 배달 정도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중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의 킷 워커 (gig-worker)는 제조공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무려 4천만 명이 제조업에서 '주문형(on-demand)' 방식으로 일합니다. 이는 중국 제조업 노동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채용 플랫폼의 지시에 따라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옮겨 다니며, 며칠에서 몇 주만 일하고 떠납니다. 한국의 일용직과 비슷해 보이지만, 규모와 체계화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자리를 찾고, 플랫폼이 모든 것을 중개합니다.

놀랍게도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 이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2000년대 경제 부흥을 이끈 이전 세대와 달리, 이들은 안정성보다 자유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미래입니다. 평균 연령 26세, 80%가 남성, 75-80%가 미혼인 이들이 도시에 정착하지 못하면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제조업 허브에서는 젊은 노동자들이 공원에서 잠을 자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conomist는 이것이 단순히 중국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기술이 노동 시장을 재편하는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목격하는 것은 미래 노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제조업 성공을 따라하려 하지만, 이미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정부들은 킷 워크를 없애려 시도하기보다는, 이들이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Economist의 결론입니다. —

원문 읽기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5/09/18/chinas-200m-gig-workers-are-a-warning-for-the-world>

중국의 운명을 쥐는 2억 불안정 노동자들

China's future rests on 200m precarious workers

They may work in factories or for delivery apps, but are united by common struggles

Save Share Summary



위의 커버스토리보다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읽어보세요. 정규 계약 없이 일하는 '유연한 노동자' 2억명은 전체 노동력의 4분의 1, 도시 노동력의 5분의 2를 차지합니다. 평균 26세의 젊은 남성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정착해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중국의 경제 침체를 완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산당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공원에서 노숙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문 읽기 :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5/09/18/chinas-future-rests-on-200m-precarious-workers>

급변의 시대는 끝났지만 더 깊은 변화가 진행중

4년 만에 중국을 다시 찾은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느낀 것은 의외로 '익숙함'이었습니다. 과거처럼 눈에 띄는 물리적 변화는 줄어들었지만, 지정학적 위치와 기술 혁신 측면에서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진핑 체제의 안정화,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중국, 그리고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도 사람들이 돈 이외의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중국이 '조심스러운 신흥 강국'에서 '자신감 넘치는 지역 강국'으로 변모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문 읽기:

<https://www.economist.com/china/2025/09/15/the-return-of-our-china-column>



shoehorn into

뜻: 억지로 끼워 넣다

본문 예문:

"Instead of trying to shoehorn gig work into their existing schemes, they should redesign the policies themselves."

(기존 제도에 깃 워크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지 말고, 정책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

어떻게 사용할까?

"The marketing team shoehorned every possible buzzword into the presentation, making it sound like corporate bingo."

(마케팅 팀이 프레젠테이션에 가능한 모든 유행어를 억지로 집어넣어서, 마치 빙고 게임처럼 만들어 놨다.)

어원 설명: 구두를 신을 때 사용하는 구두주걱(shoehorn)에서 유래. 좁은 신발에 발을 억지로 밀어넣는다는 의미에서 전용되어, 적합하지 않은 곳에 무언가를 억지로 끼워 넣는다는 뜻으로 사용됨.

사용 팁: 부정적 뉘앙스가 강한 표현으로, 무리하게 맞추려 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통합을 비판할 때 사용

유의어: force into, cram into, squeeze into

readly.club

self-dealing

뜻: 사익 추구

본문 예문:

"A shortage of good jobs is one reason why youth in several Asian countries have risen in protest at the self-dealing of their political leaders."

(좋은 일자리 부족은 여러 아시아 국가의 젊은이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사익 추구에 항의하며 일어난 이유 중 하나이다.)

어떻게 사용할까?

"The CEO's self-dealing was so obvious that even the office goldfish looked suspicious."

(CEO의 사익 추구가 너무 뻔해서 사무실 금붕어조차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유의어: corruption, self-interest, conflicts of interest

readly.club

the vagaries of

뜻: ~의 변덕, 예측 불가능한 변화

본문 예문:

"Employers prize the freedom to scale their business up or down, responding to seasonal demand, the vagaries of the market and the shifting winds of geopolitics."

(고용주들은 계절적 수요, 시장의 변덕, 그리고 지정학적 변화의 바람에 대응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

어떻게 사용할까?

"I thought I had my weekend perfectly planned, but the vagaries of London weather decided otherwise."

(완벽한 주말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런던 날씨의 변덕이 다른 결정을 내렸다.)

발음기호: /'veɪɡərɪz/

발음 팁: vay-ga-riz, 첫 번째 음절에 강세

사용 팁: 주로 격식 있는 글이나 비즈니스 맥락에서 사용되며,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의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할 때 효과적

유의어: unpredictability, whims, caprices

readly.club

set down roots

뜻: 정착하다

본문 예문:

"Having left their rural hometowns, they may fail to set down roots in the cities where they work so promiscuously."

(농촌 고향을 떠난 그들은 그렇게 자주 옮겨 다니며 일하는 도시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 있다.)

어떻게 사용할까?

"My parents keep asking when I'm going to set down roots, but I'm still figuring out which Wi-Fi password I want permanently."

(부모님은 언제 정착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나는 아직 어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영구적으로 쓸지 고민 중이다.)

유의어: settle down, establish oneself, put down roots

readly.club